



창업진흥원



◆ 총괄요약표(창업진흥원)

평가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5		1.5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8	B0	-	
	(2) 윤리경영	4	C	-	
	(3) 국민소통	0.5	B0	1.5	1.500
	2. 안전 및 책임경영	5.5		10.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B0	2	1.627
	(2) 안전 및 정보보호	1	B0	2	1.615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C	5.5	5.466
	3. 재무성과관리	3		7	
	(1) 재무예산관리	3	B0	-	
	(2) 재무예산성과	-		4	3.364
	(3) 효율성 관리	-		3	2.454
	4. 조직 운영 및 관리	7		3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	B0	-	
	(2) 노사관계	2	C	-	
	(3)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	
	(4) 총인건비 관리	-		3	3.000
	소 계	28		22	
사업관리 (50)	1.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3		6	
	(1)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			3	2.964
	(2)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			3	3.000
	(3)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2.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4		7	
	(1) 성장단계별 창업 사업화 성공률			7	6.901
	(2)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3		2	
	(1)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2	1.888

	(2)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주요사업 소계	15		15	
	1.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4	
	(1) 글로벌 진출 성공률			4	4.000
	(2)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2.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4		6	
	(1)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특례상장			6	6.000
	(2)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		
	3. 핵심미션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C		
	핵심미션 소계	10		10	
	전체 합계	53		47	
가점 (5)	(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1	A+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과제 도출 환류 노력과 정책 반영 성과	2	A0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성과	0.5	A+		
	(4)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국민 생활편의 증진 근로자 안전 제고 등 노력과 성과	1	C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기부 사전컨설팅 중기부 적극행정위원회 상정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 노력과 성과	0.5	B+		

I. 경영관리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1. 리더십 및 전략기획

- 기관장은 취임 이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철학을 전략체계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드파워(제도·성과 중심 운영)와 소프트파워(소통·공감 기반 리더십)를 균형 있게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된다. 인문학·사회과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직 내 설득력과 공감대를 제고하고, 직원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리더십은 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단순 지원을 넘어 스케일업 관점에서 유니콘 기업을 창출·육성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기관장 본인부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체화함으로써 상하·좌우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 분위기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변화 대응력이 요구되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조직 내 의견 수렴 체계를 내실화하였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세대 간 간극을 완화하고 조직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대외 협력 측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벤처캠퍼스 조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17개 창업지원 거점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병행 운영하고, 법률·특허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약 1,600명의 전문가를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였다.

-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AX(AI Transformation) 전환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 직원의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내재화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업무 혁신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편, 기관장은 조직 내 갈등 관리에 있어서, 특히 인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만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인사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 노력이 확인된다.
- 안전 및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선제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전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기조를 유지하여 현재까지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방지와 부정청탁 예방 등 윤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 통제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전략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정책 핵심 키워드 분석, 유관기관 벤치마킹, 전 직원 대상 의견조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규범의 핵심가치를 성장, 소통, 혁신, 전문으로 재설정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정립된 가치체계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내재화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혁신을 포함한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과제를 정비하는 한편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총 12개의 전략과제로 체계를 재구성한 실적이 확인된다.
-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 기관은 주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자원배분 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ESG 경영전략을 기관의 전사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업생태계 혁신 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 특히 기관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기관으로의 재도약을 강조하며 사업혁신,

지역혁신, 공공혁신, 경영혁신의 4대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8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더불어 혁신성과 환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핵심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전사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은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 기능의 실질적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기관은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사회 개최 횟수, 참여율, 경영제언 등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참석률 제고,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전 안전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사회에서 제시된 경영 제언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사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략 재정립과 혁신 추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SWOT 분석의 정교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의 분석은 주요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기회·위협 및 강점·약점 요인 간의 인과관계와 전략적 시사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성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핵심성과지표(KPI) 중 '핵심성과지표 달성도'가 과정 및 투입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과정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책 효과성과 조직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 3년 생존율 지표는 도전적인 설정으로 평가되나, 지원 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안정적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5년 생존율 지표로의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전략체계 내재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가치체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도와 공감도가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바, 단순한 전파를 넘어 교육, 참여형 프로그램, 성과연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전반에 실질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혁신역량 진단은 비교적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진단을 넘어 제도, 규정, 시스템 등 조직의 근본적 운영 기반에 대한 심층 진단을 병행할 경우 혁신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X(AI Transformation) 전환과 관련해서는 일부 현장사업 중심의 성과가 확인되나, 기관 전반의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신속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AI 도입 확대에 따른 데이터 관리, 윤리, 보안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병행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전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적극행정의 경우,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이 현장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방향성과 목표, 추진체계, 성과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전략체계를 별도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개별 과제 중심의 추진을 넘어 조직 전반의 행정문화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윤리경영

- 기관은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 청렴 골든벨 개최 등 단계별 청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외부강의 무작위 추천제 도입 및 재무계약실 신설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윤리경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창업 지원 자금을 심사하고 배분하는 기관의 고위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실질적인 도덕적 해이 근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방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은 계약체결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무계약실'을 전격 신설하여 입찰-평가-계약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이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능 통합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재무계약실)에 막대한 계약 권한이 집중되면서, 담당자의 재량 남용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담합 등 새로운 부패 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상감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용역 계약 체결 시 감사 부서 또는 외부 옴부즈만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전산상 필수 단계로 강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임원진(본부장 이상)의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누리집에 선제적으로 공개한 리더십은 우수하나, 정작 부패 리스크의 핵심 타깃인 '실무 담당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통제 장치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진흥원의 업무 특성상,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대면하고 자금 지원을 심사하는 고위험 직군(평가·선정 담당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알짜 정보를 이용해 타인(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지분 투자를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해충돌이다. 임원진의 자발적 공개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가 부패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행위 금지 내용을 포함한 반부패·청렴서약,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신고채널 홍보 확대, 위반사례 교육 등 부패행위 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내부 고충처리 채널(온라인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중대 인권침해 사건 접수가 0건으로 집계된 것에 대해 기관 차원의 냉철한 재진단이 필요하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팀장급 수당 등 소소한 행정적 고충만이 표출되는 현상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망(그룹웨어) 기반 신고 채널의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턱없이 부족하여 자발적인 제보가 위축된 '침묵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 기관은 반부패 청렴주간에 AI를 활용한 10문 10답 퀘스트, 청렴 골든벨, 캘리그래피 공모전 등 게임형(Gamification) 이벤트를 도입하여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나, 그 실효성을 실무 현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흥미 유발이나 일회성 행사성 시책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직원 비위 행위나 외주 용역사와의 부적절한 관행 등 구조적 비위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직원들의 참여 실적이 실제 부패 취약 업무 프로세스의 객관적 개선과 절차의 투명성 향상으로 직결되었음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는 질적 환류 지표 체계를 새롭게 가동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을 가정한 모의신고 훈련에 총 170명이 참여한 성과를 토대로 훈련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전

모의훈련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고 시스템 접속의 불편함, 익명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해 호소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점(블라인드 스팟)을 세밀하게 도출해야 한다. 헬프라인 전산망 시스템의 UI/UX 개편 및 신고 매뉴얼의 전면 수정 등 제도 개선으로 지연 없이 즉각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윤리경영 실행 체계 고도화를 위해 '성과윤리실'을 전담 부서로 신설하여 예방·감독 기능과 감사실의 자체 감사 기능을 분리하는 3선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무회계 및 구매계약 등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 자동검출시스템을 도입하여 위반 의심 건수를 전년 대비 244건 감소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기반의 적발 노력이 단순한 '의심 알람' 수신이나 경미한 자체 시정 조치 수준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완성될 수 없다. 적발된 위반 징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감사실의 특정 감사로 즉각 연계되는 시스템적 강제 이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적 이익 추구 비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의 징계를 가동하여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 억제력을 한층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부당한 유착 및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대가성 외부활동(강의, 평가 등) 요청 시 기관(감사실) 주도의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고, 용역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 5,602개사를 대상으로 부당요구 근절 선언을 확산시킨 점은 예방적 윤리 활동의 긍정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신고 기한 미준수 등 여전히 31건의 외부활동 복무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부활동에 대한 통제위주의 방식보다는 이를 통해 기관의 홍보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3. 국민소통

1-3-(1) 국민소통(비계량)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확인된다. 특히 이해관계자 니즈 분석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자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소통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창구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나, 채널별 기능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적정성 및 효과성 진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이 실제 이용자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중복·비효율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채널의 발굴 및 다각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기관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기관의 핵심 기능과 성과가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 및 브랜딩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지도 제고 노력을 한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3-(2) 국민소통(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점검 실적	목표부여	별점 0점	별점 0점	100.000	0.500	0.500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급	목표부여	A등급	A등급	100.000	1.000	1.00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는 구간별 득점 기준에 따라 평점 100.000점으로 가중치 0.500점 중 0.500점을 득점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구간별 득점 기준에 따라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1.000점 중 1.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재정경제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점검 결과 별점 0점으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고, 재정경제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0.7점으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경영공시의 경우 2024년 별점 3.2점 이후 2025년에는 무별점을 달성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23년 89.2점 이후 2024년에는 89.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90.7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안전 및 책임경영

2-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1-(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비계량)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확인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민간·고용평등 차원의 추진전략을 수립한 점은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6개의 추진과제와 3개의 계량지표, 3개의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 또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기관은 창업생태계 혁신 및 혁신창업 활성화,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신뢰받는 창업전문기관 실현이라는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일자리 48,462명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 연계 강화, 개방형 혁신 확대, 파트너 기관 협업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9개의 실행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전략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PDCA 기반 성과관리 체계로 운영하여 계획-실행-점검-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성과의 지속성과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핵심사업 연계를 통한 직접 일자리 35,255명 창출, 개방형 혁신을 통한 15,048명 창출, 파트너 기업 협업 기반 간접 일자리 3,431명 창출 등은 목표 달성을 견인하는 우수한 성과로 판단된다.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비위 ZERO 달성을 목표로 공정채용 체계를 강화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그 결과 청년 및 지역인재 채용 등 정부 권장 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한 점은 정책 이행성과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 양성평등 측면에서 기관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성관리자 및 여성 임원 비중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내 성별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수 여성인재의 확보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과 중장기적 인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수정 및 보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청년층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년인턴 확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턴 규모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직무 경험의 질을 제고하고, 인턴 종료 이후의 취업 연계 및 경력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일자리 관련 기능의 통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통합 플랫폼의 확장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축적된 신뢰도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내 중개자로서의 브릿지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직자와 기업 간 수요·공급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연계하여 현재 수준보다 강화된 채용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매칭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일자리의 질적 수준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양성평등 측면에서는 현재의 제도 운영을 넘어 조직 내 양성 간 문화적 인식 차이와 지원제도의 실질적 형평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 간 이질적 조직문화, 제도 체감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미흡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확대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1-(2)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81.350%	81.350	2.000	1.627

나. 평가내용

- 청년 및 고졸자에게 채용과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와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평점 81.350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627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25년 중 청년 채용 인원은 7명으로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은 3.8%였으며, 청년 인턴 채용 인원은 17명으로 청년 인턴 채용 비율은 9.3%였다. 2025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자는 1명,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7명으로 채용 비율은 각각 14.3%와 100%였다.
- 청년 신규 채용 비중과 의무고용 달성 비중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의무고용 초과달성 비중은 평점 11.491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인턴

채용 실적과 고졸 채용 실적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모두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8.42명 대비 10.08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19.8%를 달성하였으나 목표 120%에 미달하여 평점 75.000점을 획득하였다.
- 취업지원대상자 고용 의무 인원 10명 대비 9명을 고용하여 목표 대비 90%를 달성하였으며 평점 93.000점을 획득하였다.

항목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청년 신규채용 비율	3%	3.8%	100.000	0.525	0.525
청년 신규채용 의무달성	3%	3.8%	100.000	0.150	0.150
청년 신규채용 초과달성	10%	3.8%	11.491	0.300	0.034
청년 인턴채용	7%	9.3%	100.000	0.150	0.150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율	9%	14.3%	100.000	0.075	0.075
신규채용 중 비수도권 비율	35%	100.0%	100.000	0.300	0.300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달성	120%	119.8%	75.000	0.400	0.300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이행도	100%	90.0%	93.000	0.100	0.093

라. 추세분석

- 청년 신규 채용과 청년 인턴 채용, 고졸자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은 2025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충족도는 2024년 131%로 만점을 득점한 이후 2025년에는 119.8%로 평점 75.000점을 획득하였다.

2-2. 안전 및 정보보호

2-2-(1) 안전 및 정보보호(비계량)

- 기관은 정보보안 전담 조직 운영 및 시스템 재난·재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탁월) 등급을 획득하는 등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재난 복구의 무결성 확보와 대규모 건설 현장의 하청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다음 사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재해복구(DR) 모의훈련에서 핵심 전산망(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을 목표 시간(72시간) 대비 매우 짧은 3시간 50분 만에 정상화한 실적은 우수하나, 사후 검증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단순 가동 복구(RTO 달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대한 창업기업의 민감한 핵심 기술 자료나 심사 평가 데이터가 랜섬웨어 감염 등 비상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의 유실이나 변조(Data Loss) 없이 원상 복원되었는지를 해시값 대조 등으로 엄격하게 입증하는 '데이터 무결성 검증 절차'를 모의훈련 매뉴얼 내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서울 홍대에 17층 규모로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와 같은 대규모 시설 공사 과정에서 설계안전검토(DFS) 및 CM 감리사 지정 등 안전관리 조직을 가동한 점은 긍정적이나 현장 밀착 통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거, 인테리어 등 고위험 작업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 특성상, 서류상의 안전근로협약체 가동을 넘어 하청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아차사고 및 불안전 행동을 감리사나 전담 인력을 통해 적발하고 시정 조치하는 실증적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

2-2-(2) 안전 및 정보보호(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80.75%	80.750	2.000	1.615

나. 평가내용

-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보자원관리 수준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보안 감사 결과를 반영하며, 평점 80.750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615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직제규정상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자원 관리수준에서는 84점을 받아 평점 84.000점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에서는 58.75점을 받아 평점 58.750점을 획득하였으며, 정보보안 감사에서는 90.1점으로 평점 90.100점을 획득하였다.

항목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정보자원 관리 수준	100%	84%	84.000	0.500	0.42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수준	100%	58.75%	58.750	0.500	0.294
정보보호 감사 결과	100%	90.1%	90.100	1.000	0.901

라. 추세분석

- 정보자원 관리 수준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기관은 전담조직 정보보안팀(디지털AI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안 감사에서는 2023년 93점 이후 2024년에는 91점, 2025년에는 90.1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다.

2-3. 친환경·탄소중립

2-3-(1) 친환경·탄소중립(비계량)

- 기관은 다회용컵 활용(1.4만 개), 친환경 세차 캠페인 등 임직원 참여형 실천을 전개하여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19.9% 감축하였고,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40개사를 집중 육성하여 (주)스OOOO이 탄소배출권 3만 톤을 획득하는 우수 사례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정책 지원 파급력 입증 및 사옥 온실가스의 원천적 감축을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기후테크 창업기업 40개사에 대한 자금 및 인프라 집중 육성이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성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일 우수 기업(스OOOO)의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에 매몰되지 말고, 지원을 받은 40개사 전체가 당해 연도 신규 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가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총 온실가스 절감량(tCO2eq)'이나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적

임팩트(Impact)를 계량화하여 추적·측정하는 기관 차원의 자체 'ESG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가동이 필요하다.

- 기관은 임직원이 중심이 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중고물품 바자회 개최, 폐기물 저감 등 소규모 일상 실천 캠페인의 노력은 바람직하나, 사옥 전체의 환경경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투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수준의 활동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천적인 저감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옥 내부의 노후된 조명 기구를 전면 고효율 LED로 교체하거나, 냉난방 공조 설비의 지능형 전력 관리 솔루션을 신규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자체 환경/안전 예산 투자 로드맵의 구체적인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2-3-(2) 친환경·탄소중립(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온실가스 감축률/권장 감축률	목표부여	15.200%	19.923%	100.000	0.500	0.500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율	목표부여	5.000%	5.108%	100.000	0.500	0.5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모두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0.500점 중 각각 0.5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온실가스 감축률은 19.923%로 목표치 15.200%를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고, 녹색제품 구매액은 254,335천원으로 2024년 대비 5.108% 증가하여 목표치 5%를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온실가스 감축 실적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3년 241,141천원 이후 2024년 241,974천원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254,335천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4-(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비계량)

- 기관은 동반성장 주간에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116개 창업기업에 판로를 열어주고 주식회사 아○○○ 등과 1,600만 원 규모의 실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상생결제 도입 협력사를 109개사로 대폭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모두의 소비 챌린지 및 전통시장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민생 회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단발성 상생 지원의 한계를 탈피하고 낙수효과를 완벽히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은 창업기업 대상의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낸 구매 계약 성사(1,600만 원 등) 실적이 1회성 판로 지원 행사로 소멸되지 않도록 스케일업(Scale-up)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담회에 참여했던 116개의 유망 창업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발판 삼아 향후 조달청 '벤처나라'나 공공기관 전용 쇼핑몰 등에 정식으로 입점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공조달 매출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징 개선, 조달 등록 행정 지원 등 사후 밀착 컨설팅을 전사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장기적 판로 개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기관은 1차 협력사 및 잠재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기대수요를 109개사로 확대 발굴하여 대금 지급 환경을 대폭 개선한 점은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의 사례이다. 하지만 창업진흥원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수탁업체로의 대금 결제라는 1차원적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위 확산(낙수효과)에 대한 전산 관리가 필요하다. 1차 업체가 수령한 상생결제 대금이 다시 하위에서 실물 자재를 대고 용역을 수행하는 영세한 2차, 3차 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까지 체불 없이 정상적으로 릴레이 결제되고 있는지 전산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 지연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사후 추적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기관은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등 대형 국제 행사 수행 및 해외출장 부서에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지표를 개선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계약 6억 6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우선구매 실적이 특정 행사나 해외출장 부서의 예산 집행에만 편중되어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부서 단위의 수동적 독려를 넘어, 전사의 일반 사무용품이나 소액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1순위로 구매하도록 기관의 내부 예산결재망(ERP) 상에 팝업 알림이나 우선 스크리닝(강제 선택) 기능을 도입하여, 모든 부서가 빈틈없이 우선구매 실적 달성에 기여하는 촘촘한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2-4-(2)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9.382%	99.382	5.500	5.466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평점 99.382점으로 가중치 5.500점 중 5.466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창업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실적,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및 상생결제제도 활용 실적은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목표에 미달하여 평점 96.181점을 획득하였다.

항목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50%	61.6%	96.181	0.900	0.866
창업기업제품	총구매액	8%	8.0%	100.000	0.300	0.300
기술개발제품	물품	15%	60.7%	100.000	0.500	0.500
사회적기업 생산품	물품,용역	3%	3.4%	100.000	0.210	0.210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물품,용역	0.1%	1.6%	100.000	0.090	0.09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	1.5%	2.2%	100.000	1.000	1.000
여성기업제품	물품	5%	5.1%	100.000	0.500	0.500
	공사	3%	3.2%	100.000		
	용역	5%	9.8%	100.000		
장애인기업제품	총구매액	1%	2.7%	100.000	0.300	0.300
중증장애인 생산품	물품,용역	1.1%	2.2%	100.000	0.300	0.300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물품	1.2%	3.1%	100.000	0.200	0.200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물품	0.5%	0.8%	100.000	0.200	0.200
상생결제제도 활용실적	총구매액	40%	59.2%	100.000	1.000	1.000
계				99.382	5.500	5.466

라. 추세분석

- 제품 구매 실적의 경우, 2024년에는 전체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2025년에는 평점 99.244점을 획득하였다. 상생결제제도 활용실적은 2024년과 2025년 연속 만점을 기록하였다.

3. 재무성과관리

3-1. 재무예산관리

- 기관은 미래 신기술 성장 정책 강화, 경기 둔화와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강조, ESG 중심 경영 확산, 정부 창업정책 의존도, 정부예산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반납,

물가상승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축 한계 등을 분석하고, 성장성·안정성·효율성 중심의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예산 확보율, 부채비율,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률, 일반관리비 지출 통제를 핵심위험지표로 설정하고, 관심·경계·심각 단계의 대응 시나리오와 상시·주간·월간·분기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 유동성 자금 초과·부족 시기 분석을 통한 사업별 교부액 조정, 회계사고 Zero, 글로벌 창업허브 옥외전광판 임대수입 창출, 부채비율 감축, 구분회계별 성과관리 등도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 노력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창업허브(홍대) 개소에 따른 전광판 광고 임대 수입(2.3억원) 등 자체 수익원 확충 노력이 돋보이나, 이러한 수입 사업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이사회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사업의 자의적 활용 제한 기준 마련을 넘어, 향후 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임대 및 멤버십 수입 구조에 맞는 독립된 회계 정산 지침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미래 신기술 성장 정책, 글로벌·딥테크·민관협력 사업 중요성, 창업 전담기관의 전주기 창업지원 역할 등을 반영하여 예산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조사, 검토·논의, 심의·의결, 사업추진으로 이어지는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핵심사업 중심 예산편성을 통해 전체 예산을 증액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혁신, 스케일업 가속화, 기관운영경비 최초 편성 등 경영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인정된다. 또한 3선 방어체계 기반 내부통제, 이사회·기부금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 사전심의기구 운영, 예산집행·해외송금·상생결제 매뉴얼 현행화, 실무교육, 지출실명제,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정계약 및 청렴 실천을 위한 교육과 다짐 선언 등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단순히 불공정 거래 신고 제로(ZERO) 달성이라는 소극적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전환 비율이나 수익계약 총량 제한 등 규정화된 사전 통제 실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재원 다각화와 전략적 예산편성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창업기업, 학계·산업계, 민간전문가, 부처협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6년 기관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고, 2026년부터 자체수입 20억원 이상 창출을

전망하며, 장기저금리 고정금리 사용과 추가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크게 감축한 점이 인정된다. 일반관리비 비율을 소폭 감축하고, 일상감사, 3중 내부통제, 실무매뉴얼 개정, 외부회계법인을 활용한 반기결산 등을 통해 예산통제와 재무성과 관리를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체수입 전망이 옥외전광판, 임대료·멤버십 수익 등에 집중되어 있어 수익원별 위험요인과 실현 가능성, 부채비율 개선요인별 기여도, 일반관리비 감축의 지속가능성, 자체수입 확대가 실제 재무자립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부서 사업담당자 및 부서장, 재무계약실, 부처 사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하고, 목표설정, 월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비 변경사항 1일 이내 검토, 기업지원 사업비 조기집행 독려, 집행을 수시점검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60%, 3분기 75%의 분기별 집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전체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본예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상반기 교부율 90% 이상 달성, 추경 창업기업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 교부율 100% 달성,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은 적극행정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선결제 캠페인, 긴급입찰 처리, 입찰보증서 지급각서 대체 등도 신속집행 노력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기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 변경 요청 발생 시 1일 이내 검토 및 신속 승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단기성 변경 승인이 예산 통제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재무계약실의 행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1일 이내 신속 처리의 효율성은 유지하되 반복적인 변경 요청이 발생하는 사업 비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후 심의제도를 병행 도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의 사전 통제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사업비집행액/사업비예산액	목표대실적	100%	95.021%	96.017	2.000	1.920

나. 평가내용

- 효과적인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나누어 목표 대 실적 방식으로 평가하며, 2025년도 사업비 예산현액 중 95.021%를 집행하여 평점 96.017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92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25년도 사업비 예산현액은 직접비 예산(낙찰차액 등 제외) 818,079백만원이었고 사업비 집행액은 777,348백만원으로 사업비 집행률 95.021%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96.433% 이후 2024년에는 96.927%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95.021%로 하락하였다.

㉠ 일반관리비 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일반관리비/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1.129% 최저: 1.421%	1.231%	72.220	2.000	1.444

나. 평가내용

-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통해 기관의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5년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은 1.231%였으며 평점 72.220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44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인 1.227%와 전년도 실적인 1.240% 중 낮은 실적인 1.227%이며 과거 5개년 동안의 표준편차는 0.097%이다. 최고목표는 기준치에서 표준편차를 차감한 1.129%이고 최저목표는 기준치에 표준편차의 2배를 가산한 1.421%이다.
- 2025년도 매출액은 2024년 대비 9.7% 증가한 796,041백만원이고, 일반관리비는 2024년 대비 8.8% 증가한 9,798백만원이다. 2025년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은 1.231%로 2024년 대비 0.009%포인트 감소하였고 평점 72.22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은 2023년 1.090% 이후 2024년 1.240%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231%로 소폭 감소하였다.

3-3. 효율성 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3,806백만원 최저: 1,560백만원	3,295백만원	81.803	3.000	2.454

나. 평가내용

-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5년도 1인당 순사업비는 3,295백만원이었고 평점 81.803점으로 가중치 3.000점 중 2.45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사업수행 효율성을 측정하는 1인당 순사업비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인 3,057백만원과 전년도 실적인 3,017백만원 중 높은 실적인 3,057백만원이며 과거 5개년 동안의 표준편차는 749백만원이다.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표준편차를

가산한 3,806백만원이고 최저목표는 기준치에서 표준편차의 2배를 차감한 1,560백만원이다.

- 2025년도 순사업비는 총수익에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772,102백만원이었고 평균인원은 234명으로 1인당 순사업비는 3,29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평점 81.803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수행 효율성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1인당 순사업비는 2023년 3,136백만원 이후 2024년에 3,017백만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5년에는 3,29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4. 조직 운영 및 관리

4-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기관은 조직 분절화 해소를 위해 유사 기능(팀)을 대부서(실)로 통폐합하고 글로벌 서밋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50명의 겸직 체제를 가동하는 등 애자일(Agile)한 조직 혁신을 단행하였다. 부서장 상향평가 및 경영평가 기여도(50%)를 반영한 성과주의 인사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지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글로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개편에 따른 내부 피로도 관리와 성과 지표의 객관성 검증 등을 위해 아래 사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의 대대적인 대부서화(실 체제 전환) 단행과 신규 정책의 적기 대응을 명분으로 무려 50명의 핵심 인력에게 겸직 및 임시조직(TF) 업무를 부여한 조치는 단기적인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현장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소수의 우수 인재들에게 본연의 고유 실무와 타 부서(글로벌 허브실 등) 겸직 업무 등 막대한 업무 하중이 편중됨에 따라 이들의 심각한 번아웃(Burn-out)과 업무 소홀 리스크가 우려된다. 직무 분석을 고도화하여 특정인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겸직자들의 연장근로 시간과 직무 스트레스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으로 과업을 재조정(권한 위임 등)하는 조직 하중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

- 기관은 부서별 KPI에 경영평가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높게 반영하고 성과주의 차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혁신 B·P(Best Practice) 발굴' 항목에 최대 3점의 가점을 신설하여 성과급에 직결시킨 점은 부서 간 긴장감 제고에 기여한다. 하지만 부서 간 성과급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부서가 제출한 업무혁신 사례가 실질적인 대국민(창업기업) 체감 서비스 개선이 아닌 단순한 보고서 포장이나 실적 부풀리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출된 B·P의 질적 수준(타 부서로의 확산 가능성, 예산 절감액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필터링하는 내부 검증위원회 절차를 운영하고, 성과 하위 등급자(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PIP)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환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 기지 마련을 위해 공모를 거쳐 미국 뉴욕과 실리콘밸리에 주재원을 각 1명씩 신규 파견(글로벌 거점 구축)한 점은 우수한 선도적 인력 활용 사례이다. 하지만 본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 환경과 달리, 인프라가 부족한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VC 발굴 및 네트워크 개척이라는 고난도의 격무를 맨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파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다소 모호하다. 성과평가 시 별도의 가중치 우대, 파격적인 주재 수당 등 명확하게 규정화된 인사상·금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 인력을 단순 행정 보조 업무에 방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멘토링, 상담, 컨설팅 등 기관의 고유 역량에 맞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여함과 동시에 대상자 전용 유연근무제를 신설한 점은 바람직한 고령 인력 활용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합 직무가 고연차 직원에 대한 단순 예우성 보직이나 형식적 자문에 머무를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 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창업지원 노하우가 실제 유망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을 위한 심층 컨설팅이나 내부 신규 직원의 실무 역량 전수 등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로 직접 연결되도록, 임금피크제 인력 대상의 별도 맞춤형 성과지표(KPI)를 엄격하게 가동하여 기여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학습조직(CoP)의 성과를 사내 플랫폼에 상시 공유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창업지원 업무용 AI 챗봇 개발',

‘트렌드코리아 2026 집필진 참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확산 사례를 도출해 낸 점은 우수한 조직 역량 제고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연구 모임의 활동이 단순히 우수사례 포상을 받기 위한 일회성 보고서 발간 수준으로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조직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나 디지털 전환(AX) 모델들이 기관의 실제 대국민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 및 자체 전산망 개선에 지연 없이 시스템화되어 전사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도출 과제의 실무 적용률을 측정하고 사업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강력한 사후 환류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4-2. 노사관계

-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외부환경 분석과 함께 기존의 노사관계 개선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관은 신뢰와 상호 존중 중심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3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다만 기관의 추진전략은 보다 방향성있는 전략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과제에 있어서도 과제도출의 근거와 선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성과지표의 목표값을 부여하고 달성도를 관리해 차년도 계획에 환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성과지표로 3개 계량지표, 3개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계량성과지표로 노사협력체계 모니터링, 소통 활성화 모니터링, 근로조건 만족도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계량적인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프로세스와 과정으로 보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노사간 소통을 위해 소통대상을 공무원근로자, 전문계약직,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각 소통대상이 가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등 추진 성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기관은 직무급 도입 등 기관의 경영상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노사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직무급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요구하는 국가 정책이라는 점에서 노사 협력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기관의 소통채널을 일원화하고 다양화하여 현안 중심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기관의 노사협력 추진전략에서 노사관계 정기 진단과 모니터링을 위한 소통모니터링을 계량성과지표로 제안하고 있는바, 소통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략계획과 소통 채널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했다고는 하나, 보다 내실있는 교육효과성 진단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차년도 교육훈련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장기재직 휴가를 신규로 도입해 재직 10년마다 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노사공동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직무급을 도입하고 원활한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다만 내실있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급은 기관의 특성과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직무분석 및 평가, 보수체계 설계 등에 있어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에 직무급을 규정하여야 한다. 보수규정에 직무급을 규정할 때는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노사간에 임금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노사합의서를 통한 직무급 지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직무급의 제도화 및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직무기술서 작성 및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직무전문가(SME)를 활용하여 직무분석과 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기관은 직무분석 및 평가를 위한 내부전문가(SME)를 보다 폭넓게 확보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평가지 SME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의 등급평가는 노사합의에 따른 평가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진행한 평가이고, 등급이 규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제도화를 토대로 보다 충실한 직무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직무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직무평가와 등급부여를 실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급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등급을 최종확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를 조정할 때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평가결과의 수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새로운 기관장 하에 직무중심 보수체계의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소통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사협의회 및 기관장과 직원의 직접 소통 과정에서도 직무급의 중요성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직무급은 기관의 내부 수용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무급의 수용도를 확보하고 직무급의 진정한 가치를 내부 직원들이 공유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소통 채널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혁신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무자의 자체 검토 뿐 아니라 감사실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도 점검주기를 확대하였고, 체크리스트 항목 또한 확대하였다. 특히 총인건비의 경우 내부 검토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2차 검증을 통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였다. 다만 기관은 총인건비 이외에도 혁신지침 전반에 걸쳐 위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관은 경상경비를 예산액의 전년대비 감액하여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감액하여 집행하였다.
- 기관은 분기별로 복리후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체 점검과 통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들이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를 마련해 복리후생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기관은 자녀 학자금 지원, 해외파견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서 지침을 적정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총인건비 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목표부여	3.0% 이내	2.961%	100.0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부의 인상률 상한인 3.0%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000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25년도 총인건비는 10,771,406천원으로 2024년 대비 2.961% 인상되어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3.0%를 준수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가이드라인 준수금액인 10,775,528천원 대비 4,123천원을 감축하여 운영한 실적이다.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2025년도에는 만점을 달성하였다.

Ⅱ. 사업관리 (주요사업)

1.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1-1.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달성도

①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입주기업 만족도 점수	목표대실적	93.961	92.533	98.784	3.000	2.964

나. 평가내용

- 지역 인프라 사업을 지원받은 이용 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2025년도 이용기업의 만족도 점수는 92.533점으로 평점 98.784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3.000점 중 2.96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지역 인프라 사업을 지원받은 이용기업의 만족도 점수 기준치는 직전연도 실적인 89.487점이며 목표치는 기준치의 105%인 93.961점이다.
- 만족도 조사는 3가지(각 5점 만점)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4.700점(2024년 4.590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은 4.800점(2024년 4.508점),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은 4.380점(2024년 4.325점)을 받아 평균 4.627점으로 평점 98.784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역 인프라 이용 기업 만족도 지표는 2024년에 신설되었으며, 지역 인프라 이용

기업의 연도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2024년 89.487점 이후 2025년에는 92.533점으로 향상되었다.

②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지역 인프라 입주율	목표대실적	90.300	97.330	100.0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구축한 시설의 평균 입주율을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2025년도 평균 입주율은 97.330%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3.000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지역 인프라 입주율의 기준치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치인 86.0점이며 목표치는 기준치의 105%를 적용한 90.3점이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율은 96.776%,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율은 97.883%로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은 97.330%로 목표치 90.300%를 초과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되었으며, 2025년에 만점을 득점하였다.

1-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과 창업 저변 확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성과목표로는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와 창업 저변 기반 확대 조성을 선정하였다. 본 주요사업과 평가 대상사업들은 대체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가 반영되어 정의된 것으로 그 연계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본 주요사업과 일부 전략과제(지역 및 기술특화 창업 촉진)와의 연계성이 다소 불명확한바, 주요사업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나 인력 비중, 정책연계성과 ESG 연계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대상사업별로 구성한 성과지표 풀을 대상으로 SMART분석과 IPOO, ESG 적합도,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여 4개의 계량지표와 4개의 비계량지표를 주요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미흡하여 해당 성과지표가 대상사업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바, 주요사업 목적과 대상사업 성과목표와의 연계성과 현 성과지표의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를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표성을 갖춘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에 전년도 성과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IPOO 평가는 성과지표 분석보다는 성과지표 개발 단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계획 내에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전략방향별 세부추진계획과 연간 사업예산이 포함된 부서(팀)별 업무계획을 수립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업무계획에서의 부서지표(KPI)가 주요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일부 포괄하지 못하고 수립되어 있는바,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부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부서 업무계획상의 성과지표(KPI)를 주요사업 관련 성과지표로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바, 주요사업별 적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사업과 연계된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검토된 SWOT 요인과 전략이 다소 어색한바, 기관 역량 관점에서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외부 환경 관점에서 기회와 위기를 정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창업 인프라를 신규 모집하여 비수도권 창업 인프라 비중을 70.2%까지 높였고, 지역투자 전문센터, 중장년 전문센터 등을 신설·확대하여 전문·특수 기능 지역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발굴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지역에 상관없이 특화창업패키지, 창업BuS, 딥테크 밸류업을 지원하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지역별 수혜 창업기업 평균 매출액 25.5%, 신규 일자리가 8.2%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5극 3특 균형성장 기반 구축과 관련한 기관의 노력이 창업도시 조성 전략 및 계획, 모델 수립에 집중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인프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외에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한 노력과 성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창업저변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에 '기업가정신' 과목을 경기도 고교학점제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는데 기여하여, 1개 고등학교에서 창업 교과를 시범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비즈쿨 고등·특수학교 290개교에 교과서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기관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청소년 및 은퇴자 등 중장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비즈쿨 지원, 중장년센터 지정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 실적도 인정된다. 한편, 기관은 창업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를 해소 및 개선하기 위해 규제 업무 4단계 프로세스를 신설, 추진하여 129건 규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111건을 건의하였고, 9개 규제가 정부에 수용되었으며, 규제개혁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업가정신 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정규 교과 인정 이후에는 일반 학교에 과목 편성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성과가 필요할 것이며, 청소년 비즈쿨이나 소위 창업 약자 대상 기업가정신·역량 교육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성과를 보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의 계량지표로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 창업 경진대회 참여 확대 성과, 창업지원포털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계량지표는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여 계량지표의 성과 달성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창업저변기반 확대조성 관련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향상된 점을 인정한다. 다만,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지표가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바, 목표부여나 목표부여(편차)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의 비계량지표로 지역 창업 인프라 특화 지원 강화, 비수도권 중심 통합형 운영체계 전환, 창업취약계층 사각 지대 해소 노력, 창업규제해소 노력 확대 등 4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비계량지표 성과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정부정책 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부 비계량지표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관의 활동과 실적이 해당 비계량지표의 목표수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비계량지표의 정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자체평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강화하고 미흡사례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역 융합형 특화센터 전환 유도, 창업보육센터 실시간 정보 연계 확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정규 교과과목 도입 확대, 체험형 창업교육 지원 확대 등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환류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성과지표들을 개편, 신설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중기부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주무부처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환류활동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1-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의 계량지표로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와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을 설정하였다.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는 지역 인프라 사업을 지원받은 이용기업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 정의되어 있고,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은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구축한 시설의 입주율 평균값으로 정의되어 있다.
-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는 기관이 창업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였는지, 창업 인프라 지원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를 인프라 이용기업의 만족도를 통해 확인하는 결과지표에 해당하며,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은 구축한 창업지원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지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두 지표 모두 창업 인프라 구축·확충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고 주요사업 계량지표로서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에는 창업저변 확대 사업도 포함되는바, 창업저변 확대 사업을 대표하는 계량지표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지역 인프라 이용기업 만족도와 지역 인프라 평균 입주율의 목표 모두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중기부 성과계획상 해당 성과목표치를 준용하여 정하였다.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성과계획 상의 연차별 성과목표치를 동 지표의 상향목표치로 반영하는 것과 목표의 도전성 충족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바, 두 지표 모두 중기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치의 105%를 목표치로 선정한 점과 2024년도의 실적치를 감안하면 동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은 상당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5년도 실적치를 감안해 보면, 2026년도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치 선정 방식과 목표치 선정 방식을 목표부여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

2-1.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달성도

①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성공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예비단계	목표부여 (편차)	최고:100% 최저:98.583%	100%	100.000	3.000	3.000
초기단계	목표부여	최고:100% 최저:78.782%	98.980%	96.153	2.000	1.923
도약단계	목표부여	87.106%	84.677%	97.770	1.000	0.978
재도전단계	목표부여	최고:100% 최저:80%	100%	100.000	1.000	1.000

나. 평가내용

-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 재도전)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의 창업사업 성공 실적을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예비단계와 재도전단계는 모두 성공률 100%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여 각각 가중치 3.000점과 1.000점 중 만점을 득점하였다. 또한, 초기단계와 도약단계는 각각 성공률 98.980%와 84.677%로 평점 96.153점과 97.770점을 획득하였으며, 가중치 2.000점 중 1.923점과 가중치 1.000점 중 0.978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99.499%와 직전년도 실적 100% 중 높은 실적인 100%이며, 과거 3개년 동안의 표준편차는 0.709%이다.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표준편차의 2배를 가산한 100%이고 최저목표는 기준치에서 표준편차의 2배를 차감한 98.583%이다.
- 2025년도 예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은 100%로 최고목표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초기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98.137%와 직전년도 실적 98.477% 중 높은 실적인 98.477%이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120%와 80%를 적용한 100%와 78.782%이다.
- 2025년도 초기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은 98.980%로 평점 96.153점을 획득하였다.
- 도약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82.958%와 직전년도 실적 79.389% 중 높은 실적인 82.958%이며, 목표치는 기준치의 105%를 적용한 87.106%이다.
- 2025년도 도약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은 84.677%로 평점 97.770점을 획득하였다.
- 재도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100%와 직전년도 실적 100% 중 높은 실적인 100%이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120%와 80%를 적용한 100%와 80.000%이다.
- 2025년도 재도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은 100%로 최고목표 100%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성장 단계별 연도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다. 예비단계(2023년 100%, 2024년 100%, 2025년 100%), 초기단계(2023년 98.138%, 2024년 98.477%, 2025년 98.980%), 도약단계(2023년 79.536%, 2024년 79.389%, 2025년 84.677%), 재도전단계(2023년 100%, 2024년 100%, 2025년 100%)
- 예비단계와 재도전단계는 최근 3년 동안 100%를 달성하였고, 초기단계와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창업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지역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성과목표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기술·지역 특화 창업 촉진을 선정하였다. 본 주요사업과 평가 대상사업들은 대체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가 반영되어 정의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전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전략과제와 주요사업의 연계성이 향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성과목표가 대상사업명과 큰 차이가 없이 설정되어 있는바, 대상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이 대상사업별로 구성한 성과지표 풀을 대상으로 SMART분석과 IPOO, ESG 적합도,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여 6개의 계량지표와 4개의 비계량지표를 주요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상사업 중 기술·지역 특화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창업 성공률과 같은 결과지표가 부재한바, 현 성과지표의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를 재검토하여 결과지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표성을 갖춘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에 전년도 성과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IPOO 평가는 성과지표 분석보다는 성과지표 개발 단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계획 내에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는 전략방향별 세부추진계획과 연간 사업예산 집행계획이 포함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업무계획에서의 부서지표(KPI)가 주요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일부 포괄하지 못하고 수립되어 있는바,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부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부서 업무계획상의 성과지표(KPI)를 주요사업 관련 성과지표로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바, 주요사업별 적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사업과 연계된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검토된 SWOT 요인과 전략이 다소 어색한바, 기관 역량 관점에서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외부 환경 관점에서 기회와 위기를 재정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예비창업자부터 재창업자를 포괄하는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1,776개사를 지원하였고, 초기단계 창업기업 대상 민간투자 매칭형

지원트랙 신설, 도약단계 창업기업 대상 대기업 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M&A 프로그램 운영, 재기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체계 개편을 포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건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바, 지원의 내실화뿐 아니라 지원 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관은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간접비 집행관리 미흡과 환수금 미납기업 참여제한 관리 미흡을 지적받은바, 유사 사례 방지와 미흡 사항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타 부처 사업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주력산업 연계 기술창업패키지 선발 트랙을 신설하는 등 기술·지역 특화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청년 창업기업 비중과 지역 창업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이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의 직접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지원기업 만족도와 같은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추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이 기술·지역 특화 창업 촉진 차원에서 권역별 특화 딥테크 창업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1개 대학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창업 사업화 10개사에 지원하여 신규고용 8명, 투자유치 1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의 계량지표로 (예비, 초기, 도약, 제도전)창업 사업화 성공률, 창업 사업화 사업 탈락기업 만족도, 대기업 협업 공동사업화 성공 확대, 통합공고 참여기관 확대, 지역기반 신산업 사업화 지원 확대, 지역 사업화 지원기업 매출 성과 확대 등 6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창업 사업화 사업 탈락기업 만족도를 제외한 대부분 계량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여 계량지표의 성과 달성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목표치의 도전성은 일부 미흡해 보이는바, 기준치 및 목표치 상향 수준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지역 특화 창업 촉진 관련 계량 성과지표 일부는 그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가 다소 불분명한바, 대상사업 목표와 연계한 계량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의 비계량지표로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조성, 지역 역량 활용 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 전방위적 창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확대 등 4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비계량지표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성과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정부정책 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부 비계량지표의 목표가 다소 협소하게 정의되어 그 목표의 달성이 해당 비계량지표의 목적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부 비계량지표는 실행과제명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비계량지표의 정의와 목표를 적절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자체평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강화하고 미흡사례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업화 탈락기업에 대한 실패 역량 분석 지원, 사업 신청항목 간소화, 과기특성화대학 연계 딥테크 인프라 구축 및 창업중심 대학 중심 지역 사업화 지원, 지역청년 전용 사업화 사업 신설 등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환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 가운데 개선, 신설된 내용에 비하여 환류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바, 기관의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성과지표들을 개편, 신설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중기부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주무부처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환류활동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의 계량지표로 예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 초기단계 창업사업화 성공률, 도약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 및 재도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 등 4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지표별로 3:2:1:1의 가중치를 두었다. 네 지표는 각각 당해연도 해당 창업 지원사업 협약 종료기업의 창업성공 비율로

정의되어 있다.

- 네 계량지표는 모두 창업성장 단계별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창업기업 발굴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과지표에 해당하며,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한 성과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지표 구성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창업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발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의 적절성은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예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과 초기단계 창업사업화 성공률, 재도전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목표를 목표부여(편차) 혹은 목표부여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고·최저 목표 가중치를 2표준편차 혹은 20%로 반영한바, 이들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약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의 목표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통상 계량지표는 목표부여 혹은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도약단계 창업 사업화 성공률 목표의 도전성 확보를 위해 계량지표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

3-1.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달성도

①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목표부여	최고: 100% 최저: 79.064%	98.535%	94.401	2.000	1.888

나. 평가내용

-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의 생존율 성과를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2025년도 생존율은 98.535%로 평점 94.401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2.000점 중 1.888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의 생존율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98.830%와 직전년도 실적 98.351% 중 높은 실적인 98.830%이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120%와 80%를 적용한 100%와 79.064%이다.
-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의 생존율은 최근 3년간 TIPS 지원기업의 평가연도 말일 기준 생존율로 측정하며, 2025년 말 생존율 98.535%로 평점 94.401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의 생존율 지표는 2025년에 신설되었으며, 연도별 생존율은 2023년 98.785% 이후 2024년에는 98.351%로 소폭 하락하였고 2025년에는 98.535%로 소폭 반등하였다.

3-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해 민간 투자연계 사업화 사업과 민관협력 기반 개방형 혁신 확산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성과목표로는 민간 주도 유망 창업기업 육성과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 확산을 선정하였다. 본 주요사업과 평가 대상사업들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가 반영되어 정의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성과목표가 대상사업명과 큰 차이가 없이 설정되어 있는바, 대상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주요사업과 일부 전략과제(지역 및 기술특화 창업 촉진)와의 연계성이 다소 불명확한바, 주요사업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나 인력 비중, 정책연계성과 ESG 연계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우선순위와 배점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대상사업별로 구성한 성과지표 풀을 대상으로 SMART분석과 IPOO, ESG 적합도,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여 6개의 계량지표와 4개의 비계량지표를 주요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업무계획의 부서지표(KPI)가 주요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일부 포괄하지 못하고 수립되어 있는바,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부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부서 업무계획상의 성과지표(KPI)를 주요사업 관련 성과지표로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비계량지표의 경우, 그 목표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다소 불명확한바, 비계량지표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비계량지표를 재정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가 높은 목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계획 내에 혁신·글로벌 창업 성장 가속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전략방향별 세부추진계획과 연간 사업예산 집행계획이 포함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바, 주요사업별 적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사업과 연계된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검토된 SWOT 요인과 전략이 다소 어색한바, 기관 역량 관점에서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외부 환경 관점에서 기회와 위기를 재정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민간주도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TIPS 성장경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창업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진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19개 글로벌 TIPS 지원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re-TIPS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기업 전용 사업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창업기업 대상 IR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TIPS 성장경로 분석 시스템을 개발 및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예비 유니콘 창업기업 지원, 글로벌 투자연계 확대 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창업·육성, 글로벌 투자연계 실적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확인이 어려운바,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제재부가금 검토·부과 미흡을 지적받은바, 유사 사례 방지와 미흡사항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참여가 미흡했던 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신설하였고, 방산 분야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을 위해 방위산업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고, 방산 분야 군 협업과제 및 대·중견기업 협업과제가 10개 선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획자 협력 확대나 창업기업 기술유출 예방 노력의 경우, 구체적인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바,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의 계량지표로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예비유니콘 창업기업 지원 성과, 민간주도 틈스운영사 지속 발굴 확대, 창업기획자 협력 확대, 대·중견기업 협력과제 발굴 성과, 대·중견 기업 공동 사업화 참여 확대 등 6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계량지표는 민관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외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여 계량지표의 성과 달성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목표치의 도전성은 일부 미흡해 보이는바, 기준치 및 목표치 상향 수준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투자연계 사업화 사업의 성과지표 다수는 투입지표에 해당하는바, 산출 및 결과지표를 추가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의 비계량지표로 글로벌 투자연계 확대 노력, 투자 준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기업 기술유출 예방 노력 강화, 민관협력 특화 협업체계 구축 등 4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비계량지표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성과는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정부정책 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부 비계량 성과지표는 그 성과목표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고, 목표가 다소 협소하게 정의되어 그 목표의 달성이 해당

비계량지표의 목적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부 비계량지표는 실행과제명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비계량지표의 정의와 목표를 적절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자체평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강화하고 미흡사례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AI 기술적용 팁스 지원기업 성장경로 분석 모델 개발, 지역소재 민간투자 운영사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 44개사 후속투자 연계, 중견기업 참여 확대 및 전용 프로그램 신설 등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환류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성과목표를 재정의하고, PEST 분석·진단을 통해 SWOT 요인 도출 및 연계성 강화 등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환류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주무부처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환류활동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3-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은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의 계량지표로 민관 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을 설정하였다. 본 계량지표는 민관 공동창업자 육성기업의 최근 3년간 생존율로 정의되어 있다. 민관 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 지표는 민관 공동창업자 육성사업(TIPS) 수혜기업의 3년 생존율을 측정한 것으로 결과지표에 해당하며,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 내용 및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 지표 구성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속성장 스케일업 가속화 사업에는 민관협력 기반 개방형 혁신 확산 사업도 포함되는바, 민관협력 기반 개방형 혁신 확산 사업을 대표하는 계량지표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민관 공동창업자 육성기업 생존율의 목표를 목표부여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고, 기준치는 전년도 실적과 과거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으로 정하고,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20%를 가감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Ⅱ. 사업관리 (핵심미션)

1.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1-1. 핵심미션 성과지표의 달성도

① 글로벌 진출 성공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글로벌진출 기업/지원기업	목표부여	최고: 78.828% 최저: 52.552%	82.584%	100.0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성공 실적을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2025년도 성공 실적은 82.584%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4.000점 중 4.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글로벌 진출 성공 비율의 목표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65.052%와 직전년도 실적 65.690% 중 높은 실적인 65.690%이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120%와 80%를 적용한 78.828%와 52.552%이다.
- 글로벌 진출 성공 여부는 협약 기간 내 기업설립, 매출, 수출, 지재권, 투자, 계약체결(NDA, LOI, MoU, 기술제휴), 수상 등으로 판단하며, 2025년에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178개, 성공기업은 147개로 성공률 82.584%가 최고목표 78.828%를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글로벌 진출 성공 비율은 2023년 74.3% 이후 2024년 65.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5년에는 82.58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2. 핵심미션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핵심미션인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설정하였으며, 핵심미션 사업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연계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 보유로 사업 시너지 제고, 국정과제, 중기부 중점시책 연계 글로벌사업 추진으로 정책 이행력 확보를 고려하여 핵심미션으로 설정된 점이 확인된다.
- 기관은 L-SMART라는 지표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표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전략연계성 등과 로직(IPOO), ESG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평가(전략연계성 중점)와 외부평가(L-SMART 분석), 기관장 주재 검토회의를 거쳐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영역의 일부 지표는 신규 지표로 과거 실적 기반이 부재하여 목표치의 도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의 도전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노력은 추가로 필요하다.
-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내부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외부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하여 추진 전략을 도출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중장기 사업추진 로드맵 역시 단기('25년)·중기('26~'27년)·장기('28~'29년)로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6개의 추진 전략을 구분 없이 편성하고, 개별 추진 전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실행과제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하나로 통합된 6개의 추진전략에 3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되어 전략적 연계성 확인에 한계가 있다.
- 기관은 지원예산을 전년 759억원에서 805억원으로 46억원 증액하여 글로벌 인프라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배분하고, 글로벌 전담 부서(글로벌본부, 글로벌전략실, 글로벌허브실, 글로벌협력실, 해외사무소)로 전문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이 확인된다.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계획에서도 글로벌 대기업 협업 지원 확대는 수시, 해외협력 현지 프로그램 다각화는 분기, 현지국가 국제협력 확대는 연간,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 만족도는 반기 등 지표 특성에 맞는 주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글로벌 진출 지원국이 확대되고, 통합사무소가 신설되는 등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22명에서 19명으로 3명 감소한 점이 확인된다. 감소된 인력으로 확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원배분과 운용 측면에서 적절성 검토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

- 기관은 부처 연계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 파트너십 강화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체계의 두 가지 문제점, 즉 '진출 국가단위 현지 지원체계 부재로 현지 투자 프로그램 연계 부족'과 '범부처 역량 활용 사업연계 미흡으로 진출국가별 부처 사업 연계 필요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진출국가별 산업·기술분야 연계 강화와 범부처 역량 활용 및 타겟팅 국가 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의 실적과 성과관리가 다소 단년도 중심의 활동과 성과로 관리되고 있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전년대 비교하여 개선된 실적과 성과 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K-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니즈를 반영하여 전략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거점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사무소 개소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지 기관·기업 방문과 투자사·현지기업 비즈니스 매칭이 다양하게 발생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는 AI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8개사의 108억원 국내외 투자유치와 참여기업 중 88% 해외진출 성공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의 실적과 성과가 당해연도의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실적과 성과관리의 체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센터(외국인 국내 정착)·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외국인 창업성장)·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해외 창업기업 유치)를 추진한 점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기업의 입주 사례가 증가하고,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별비자 취득률이 34.5%(발급 29건 중 취득 10건) 수준으로 확인되어 비자 발급 후 실제

국내 정착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들이 법인설립 이후 국내 시장 안착과 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후속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도 필요하다.

1-3. 핵심미션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핵심미션인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당해연도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기업 비율을 계량지표로 설정한 점이 확인된다. 지원기업(B) 중에서 성공기업(A)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량지표의 성과달성 수준이 점점되고 있다. 다만, '24년도에는 157개의 성공기업이 있었으나 '25년도 147개의 성공기업이 발생하여 약 10여개의 성공기업의 수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지원기업(B)의 수가 전년보다 61개 감소하면서 기관의 계량평가 점수는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원기업과 성공기업의 비율로 계량지표를 측정함에 따라서 성공기업의 감소에도 계량성과가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계량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하거나 추가적인 계량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2-1. 핵심미션 성과지표의 달성도

①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특례상장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코스닥 상장 기업 수(누적)	목표부여	최고: 20 최저: 14	20	100.000	6.000	6.000

나. 평가내용

-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실적을 평가하는 상향지표로, 2025년 말 누적 상장기업 수는 20개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6.000점 중 6.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 실적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12개와 직전년도 실적 17개 중 높은 실적인 17개이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각각 기준치의 120%와 80%를 적용한 20개와 14개이다.
- 2025년 말 누적 코스닥 상장 기업은 20개로 최고목표 20개를 달성하여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2023년 말 11개에서 2024년 말 17개, 2025년 말에 20개로 증가하였다. 즉, 연도별로는 2023년에 3개, 2024년에 6개, 2025년에는 3개의 기업이 추가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다.

2-2. 핵심미션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와의 전략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핵심미션인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도출한 점이 확인된다. 해당 핵심미션은 딥테크 창업 성장 기반 구축과 딥테크 창업기업 스케일업 가속화로 대상 사업을 구성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PEST분석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지표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SWOT분석을 통해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L-SMART라는 지표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전략연계성, 로직(IPO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초격차

지원기업 유니콘기업 육성 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1개사로 전년 실적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핵심 성과지표로서의 도전성이 적정한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딥테크 창업기업 스케일업 가속화와 관련한 초격차 AI 링크업 지원분야 확대의 경우 '분야'를 측정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의 구분과 분야 진출의 도전성에 관한 설명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또는 다른 성과지표를 추가로 고려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위원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민간검증 트랙에서 96개 수요기업(대기업 등)과 함께 유망기업 30개사를 발굴하여 전년 대비 수요기업 8개를 늘리고, 일반트랙에서 신기술 보유 신생 창업기업 125개사를 발굴하면서 선발비중이 전년 대비 10%p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딥테크 스타트업 제도·환경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딥테크 기술에 관한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딥테크 기술 분야 규제개선 정책연구회를 3회 개최하고,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등 기술분야 규제개선 활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규제개선 정책연구회 3회 개최가 실제 규제 개선 입법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딥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도출된 대·중견기업과의 신뢰관계 구축 어려움과 중기부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의 딥테크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 융합 및 연계 지원 필요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경영·실증·시장 측면에서 개방형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중견기업 47개사와 스타트업 111개사의 사업화 지원 실적과 구매·계약 66건 체결로 122억원 사업화 성과를 달성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국내외 IR 15회 개최, 171개사 참가지원을 통해 밋업, 멘토링, 투자상담 등 618회의 지원 실적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기관의 노력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외 투자 IR의 경우 실적과 성과향상을 위한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이 추가로 필요하다.

- 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 신설을 정책 기회로 활용하여 기술특례상장 3단계 지원체계(준비→검증→연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점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3개사의 기술특례상장을 달성하여 누적 20개사로 확대하는 핵심 성과를 창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3. 핵심미션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관은 핵심미션인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의 계량지표로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설정한 점이 확인된다. 해당 지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 수를 측정하여 성과달성 수준을 점검한다.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사례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22년부터 '24년도의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인 목표부여 방법의 목표의 도전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코스닥 상장 자체가 도전적인 과정일 수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실적과 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을 도전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